



(주)하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닭고기 시장전망 및 대응전략 밝혀



(주)하림(대표이사 김홍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전국 대리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등급판정 시행에 따른 본사의 대응전략 및 시장변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10일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문용 사장은 시장변화에 맞서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 3가지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첫 번째 비전의 핵심내용은 "FTA 체결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비전의 핵심은 "최고의 품질과 글로벌 생산성을 달성한다면 수입육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및 등급판정 제도는 수입육으로부터 국내산 닭고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의 시작이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FTA 체결은 농산물에 있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값싼 농산물은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선육대리점 전주하림의 이정우 사장은 "닭고기 시장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며 "미래의 시장 흐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게 한 자리였다"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주)하림은 향후 법규개선 및 시장흐름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부드러워진 육질에 풍미도 으뜸, 치킨팜 리뉴얼



계육과 돈육으로 만든 정통 캔햄인 치킨팜이 리뉴얼 됐다.

새로워진 치킨팜은 계육만을 사용해 약간 딱딱했던 기존 치킨팜과는 달리 돈육을 섞어 더욱 부드러워진 육질과 캔햄의 풍미가 짙어진 점을 자랑한다.

또한 조미료의 사용을 대폭 줄여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졌으며, 소비자가격도 1,100원선으로 저렴해진 점이 특징이다.

육질이 부드럽고 짭짤한 맛의 치킨팜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아 밥반찬으로 제격이며, 각종 찌개나 볶음밥 등에도 잘 어울린다.

■ 무료 한방진료 실시



(주)하림은 지난 4월 11일 대강당에 마련된 한방진료실에서 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한방진료를 시작했다.

진료는 익산에서 강익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익현 원장이 맡았다. 강 원장은 오래전부터 빈민촌과 도시외곽 등지에서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

무료한방진료는 지난 3월 노무관리팀 주관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질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준비됐다.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 한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무료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물류2팀 상차반 김상태 사원은 “무거운 짐을 들었다 났다를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뭉치고 아픈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생각해 이런 서비스를 마련해줘서 기분이 좋다”고 흐뭇해했다.

한방진료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 접수한 사원에 한해서 선착순 30명까지 가능하다.

■ 2007 서울국제식품전 참가

(주)하림은 지난 4월 24일~2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07 서울국제식품전’에 참가해 포장육 및 닭가슴살을 중점적으로 홍보



했다.

(주)하림은 신선육과 육가공의 주력제품 및 신제품의 홍보를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용가리 캐릭터 인형을 통해 하림의 친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크고 화려한 부스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체지방 측정, 투호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했다.

신선육 부분은 포장육 의무화에 따른 포장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포장육 의무화 하림이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 소비자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육가공은 “닭가슴살로 가벼워지세요”라는 컨셉으로 바베큐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허브햄, 슬라이스햄, 슬림닭가슴살 등 닭가슴살 신제품 알리기와 트랜스 지방 ‘0’에 초점을 두고 전시회를 운영했다.

특히 “슬림닭가슴살”이라는 신제품은 외국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이를 상당한 상품기획팀 백재승 차장은 “해외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국제식품전시회를 참관한 외국인들은 삼계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건강과 미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의 닭가슴살과 닭가슴살 가공품에 대한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주)마니커

제너시스 신입사원 동두천공장 방문



오랫동안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와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너시스 그룹 신입, 경력사원 30여명이 지난 4월 5일 마니커 동두천공장을 방문했다.

이재일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회사 소개와 홍보영상을 시청한 제너시스 직원들은 배석한 마니커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특히 품질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마니커 동두천공장이 품질 관리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 전사적 제안제도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주)마니커 전 사업장에서 제안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제안제도는 공장 등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전사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안제도는 그 성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제안제도가 상설화 됨에 따라 (주)마니커는 업무개

선과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7 서울국제식품전 참가



(주)마니커가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7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7)'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마니커는 신제품 춘천닭갈비를 비롯한 50여종의 신선육, 육가공품을 전시하고, 무료 시식회를 열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춘천닭갈비는 양념이 배어 있어 조리도 간편한데다가 전문점 못지 않은 맛으로 시식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 상반기 팀장교육 시행



상반기 팀장교육이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 19일

부터 21일까지 2회에 걸쳐 각각 2박3일씩 시행됐다.

부장과 차장급 간부사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팀장 교육은 목표관리를 중심으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마니커는 지난 3월에 시행한 임원교육과 이번 팀장교육에 이어 5월에는 중간 관리자 교육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전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다.

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장생산 설비 견학 및 무료 기증식을 가졌다.

■ 이월초등학교와 자매결연식 거행



(주)체리부로는 5월 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월초등학교 어린이, 교직원, 충북도 위원, 교육단체 위원과 체리부로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월초등학교와 자매결연식 행사를 가졌다.

(주)체리부로는 이월초등학교에 기부금 및 당사 제품 증정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일조하고, 영양 많고 맛있는 닭고기 제품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필수 단백질을 제공함으로써 식품회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주)체리부로

지역 사회와의 사랑 나눔 실천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가공업체의 하나로 창업 후 16년간 줄곧 충북 진천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는 지역 토착 기업으로서 성장의 원천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이웃과의 사랑 나눔 행사'를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 환원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닭고기 무상지원 활동을 인근 10여 개 사회복지센터 및 6개 아동복지센터 등 16개 곳으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주)체리부로는 5월 2일 가나안복지마을, 명화선교

성화식품(주)

임직원 참여 속에 식목 행사 열어

성화식품(주)(대표이사 이승준)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갖고 회사 주변에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2~3년 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심은 뒤



이사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송세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이 부각되는 만큼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민 대표이사는 4월 17일자로 (주)체리부로 영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주)올품

닭고기 등급제 시행

한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 중단됐던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이 1등급 이상의 닭고기 사용을 권장하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됨에 따라 (주)올품(대표이사 이동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또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